

김석범 『화산도』에 나타난 4·3의 양상과 그 의미*

김동윤** | 제주대

< 목 차 >

1. 들머리
2.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
3. 인간애와 평화 지향의 정신
4. 바다와 성내의 장소성
5. 마무리

국문초록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는 2015년 10월 국내 완역 출간을 계기로 그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작품은 여러 부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우선 4·3소설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화산도』는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으로서의 4·3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일본과 미국에 의한 연이은 식민 상황과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아울러 이 글은 2016년 6월 22일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탐라문화연구원 공동주최의 ‘재일제주인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4·3문학으로서의 『화산도』」를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한반도 분할 점령에 따른 분단 극복의 염원이 제주도에서 분출된 것이 4·3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계속되는 식민 상황에 대한 제주도 민중과 지식인들의 인식, 점령군을 자처한 미군의 존재, 4·3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미군정 정책에 따른 친일파의 득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연합국에 협력한 조선이 분할되어 피폐해진 데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투쟁으로서의 4·3의 의미도 강조되었다.

또한, 『화산도』에서는 4·3이 끝내 대참사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데 따른 안타까움이 시종일관 감지된다. 작가의 신념은 작중인물 이방근을 통해 주로 나타나는데, 이방근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성과를 보였던 4·28평화협상이 경찰에 의해 깨지는 상황이 되고, 이후 사태가 악화일로로 걷게 되자, 협상 파괴 공작에 나섰던 정세용을 작품 말미에서 직접 처단한다. 아울러 이방근은 게릴라 지도부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비판한다. 대살육의 참화에 빠져드는 후반부에 이르러 이방근은 게릴라들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데 혼신을 다한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고독한 투쟁이었다.

『화산도』의 위상은 바다와 성내(城內)의 의미를 부각시킨 장소성(場所性)에서도 빛난다. 캄파 투쟁을 위해 넘나든 바다, 유달현을 처단한 바다, 밀항선을 띄우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등이 밀도 있게 그려졌는데, 이는 4·3소설의 영역을 바다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성내가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었음도 다른 작가의 4·3소설에서 접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다. 제주도 정치사회적 중심지이면서 지식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곳, 게릴라의 공격이 거의 미치지 못한 곳, 미군과 군경·서청의 거점인 곳인 성내가 전경화 됨으로써 4·3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 주제어: 4·3소설, 『화산도』, 반제국주의, 평화, 장소성

1. 들머리

2015년 10월 재일(在日)작가 김석범(金石範)의 대하소설 『화산도(火山島)』가 한국에서 완역되어 출간¹⁾되었음은 일대(一大) 문화사적 사건이다. 한국의 비평가, 연구자를 비롯한 독자들은 이 대작을 마침내 온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²⁾ 앞으로 『화산도』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하소설의 번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범박하게 그 내용을 짚어보면, 시대적으로는 1948년 전후 해방정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고, 공간적으로는 제주도-목포-광주-대전-서울-부산의 육로와 해로,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를 잇는 한반도 바깥의 육로와 해로를 아우른다. 또한, 정치이념적으로는 한반도(특히 제주도)에서 반목했던 남북한 좌우익의 갈등/대립과 함께, <제주4·3사건>을 둘러싼 군경-미군-무장대-제주도민 사이의 사상/무력충돌을 전면화하면서도,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과 남북분단, 이승만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제강점기 친일파 세력이 제기하는 사회현실만이 아니라 여수순천반란사건 등의 극한적 대립양상도 형상화된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당대 한반도에 존속해온 봉건적인 가부장제, 해외유학, 신세대의 결혼관/자유연애, 제주도의 생태학적 문화지리를 엮어내고 있다. 『화산도』는 해방정국의 정치경제의 현실을 부조(浮彫)해내는 차원을 넘어 사회역사, 민속종교, 통신교통, 의식주와 교육에 이르는, 당대의 정치역사성, 사회문화적 지점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걸작인 셈이다.³⁾

이 인용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김석범의 『화산도』는 매우 여러 부면에

-
- 1) 김석범, 김환기·김학동 옮김, 『화산도』1~12, 보고사, 2015. 일본어 원전은 1997년 문예춘추(文藝春秋)에서 완간되었다. 제1부 번역본이 1988년 이호철·김석희의 작업으로 실천문학사에서 간행된 바 있는데, 이는 원전과 달리 일지(日誌)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더러 누락시킨 부분도 있다.
 - 2) 공동 번역자인 김학동은 “『火山島』는 일본문학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소개될 때 그 존재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한국문학이자 민족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질게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동, 「『火山島』 완역의 의미」, 『제주작가』 2005년 겨울호, 287쪽.
 - 3) 김환기, 「김석범·『화산도』·<제주4·3>: 『화산도』의 역사적/문화사적 의미」, 『일본학』4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11, 2쪽.

서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텍스트다.⁴⁾ ‘다성적인 작품’⁵⁾인 것이다. 이 글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출발한다. 바로 4·3소설로서 이 작품을 읽는 것이다.

김석범은 4·3의 진상규명운동과 평화·인권운동을 앞장서서 펼쳐온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2015년 4월 제1회 ‘제주4·3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만큼 4·3의 상징적인 작가라는 것이다. 김석범도 4·3이 자신의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서 4·3을 주목함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⁶⁾ 이에 여기서는 『화산도』에 4·3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여타 4·3소설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피는 가운데, 그것이 4·3소설로서 지니는 위상과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4·3문학 연구의 영역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답보상태를 보이는 4·3소설의 창작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는다.

『화산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4·3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연구자는 “빨치산 측에 따르는 제주 민중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 경찰이나 서북쪽에 따르는 민중에 대한 묘사는 별로 그려져 있지 않다.”⁷⁾고 분석했다. 그는 “『화산도』

4) 권성우는 “『화산도』는 비평 쓰기에 대한 열망을 한껏 자극하는 최량의 문학 텍스트”라면서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망명, 밀항, 인물 형상화의 의미, 혁명에 대한 사유 등을 논의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화산도』에 드러난 친일 문제, 정치와 예술, 허무주의와 고독, 조직과 자유, 혁명과 반혁명에 대한 사유, 지극히 문학적인 묘사와 표현, 제주도의 인문지리, 해방 직후 서울 도심의 문화적 풍경, 등장인물들의 꿈, 문학적 한계 등에 대해 글을 쓰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우, 『망명, 혹은 밀항(密航)의 상상력』, 『자음과 모음』 2016년 봄호, 262~283쪽.

5) 유임하, 『초대서평-김석범 소설 『화산도』』, 『아시아경제』 2016.5.2. 유임하는 한국어 번역본의 책임교역자이다.

6) 나카무라 후쿠지는 “『화산도』는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친 남한을 무대로 하면서 제주4·3항쟁과 친일파 처단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소설의 지주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친일파 문제는 4·3의 한 원인이라고 하겠기에 사실상 4·3이 소설의 핵심이라 하겠다.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제주4·3항쟁과 재일한국인 문학』, 삼인, 2001, 7쪽.

7) 오은영, 『재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조선적인 것: 김석범 작품을 중심으로』, 선인, 2015, 201쪽.

는 1만 1천장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무장대 측의 관점으로 기울어 있어 균형이나 서북쪽이 오로지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묻는다고보다, 누가, 어떻게 해서 봉기를 일으켰는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즉 『화산도』에서 4·3사건은 도민에 의한 봉기라기보다는, 공산당조직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이 부각되어, 고통스러웠던 도민의 관점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⁸⁾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무장대 측에서 사건을 보는 관점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4·3사건의 설명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⁹⁾고 평가했다.

이런 관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경찰이나 서북쪽에 따르는 민중에 대한 묘사가 별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당시에 그런 민중이 적었기 때문이다. 균형이나 서북쪽이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모습이 강조될 수밖에 없듯이 바로 4·3의 진실이다.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와 ‘누가, 어떻게 해서 봉기를 일으켰는지’는 거의 같은 질문이다. 공산당조직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이 부각됨에 따라 고통스러웠던 도민의 관점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은 심각한 오류로 보인다. 봉기 지도부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고뇌와 투쟁과 갈등과 좌절을 밀도 있게 드러냄으로써 4·3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각시킨 것이 어찌서 문제가 되는가. 왜 폐기되어야 마땅한 ‘공산폭동론’에 근거해 4·3을 재단하려는가. 무장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바로 봉기 중심 세력의 신념과 갈등을 정면에서 다루었다는 그 점 때문에 이 작품이 의미가 한껏 부각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위의 연구는 『화산도』가 지닌 특징 자체는 잘 꼬집어 내었다고 본다. 한국의 독자들은 4·3에 대한 김석범의 관점이 상당히 낮설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8)으로 대표되는 민중수난사로서 4·3을 보는 관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순이 삼촌』이 유신독재 시대에 거대하고 견고한 금기의 벽에 대응하는 진실 복원의 한 방식이었을진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틀을 벗어난 방식의 접근에는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는 형국이다. 4·3에서 억울한 죽음과 그에 수반한 고통만 있다면야 원혼을 잘 달

8) 위의 책, 203쪽.

9) 위의 책, 250쪽.

래주고, 합당한 기념사업과 보상을 해나가면 정리될 수 있다. 국가추념일이 되었으니 이제 유족 복지를 더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 이른바 ‘완전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4·3의 일부일 뿐이기에, 거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 혹은 좌우 대립에서 비롯된 국가폭력의 문제로만 4·3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다. 제주와 한반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지구적 시각에서 4·3을 만나야 한다. 김석범의 『화산도』는 그런 시각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작품인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화산도』에서 포착되는 4·3의 의미를 두루 점검해야 마땅하다.

2.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

『화산도』는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으로서의 4·3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연이어 침탈 또는 점령당하는 상황이 가장 문제였음을 짚어낸다. 일본과 미국은 외양에선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제의 지배,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의 지배”(VII-153)¹⁰⁾ 상황은 작품에서 수시로 강조된다. 결국 완전 독립과 진정한 해방에 대한 갈망이 제주에서 분출된 것이 4·3이라는 관점을 견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1947년 3·1절 28주년 기념식¹¹⁾에서 자주 독립의 의미를 강조했음을 회고하는 장면이 제2부(13장 5절)에서 비중 있게 취급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작품의 서장에서부터 연속되는 식민 상황을 당시 제주민중들이 간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1948년 2월 제주성내로 진입하는 버스

10) () 안의 로마자는 이 글의 텍스트인 보고서 번역판의 권수, 아라비아숫자는 쪽수를 말한다. 앞으로 이 글에서 작품 인용 시에는 이렇게 명기기로 한다.

11) 이 기념식 직후 이어진 가두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3·1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4·3의 도화선이 되었다.

에서 어떤 농부가 하는 말이다.

누가 착취를 했냐고? 그야 물론 일본군이 누구겠소. 지금은 미국 군대가 와 있지만. (...) 요즘 세상은, 이번엔 미국이 들어와서 더 살기가 어려워졌지만, (...) (I-17~19)

이 농부는 국민학생 손자를 둔 50살 남짓의 남자다. 일제의 착취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보낸 그는 해방을 맞았는데도 미국이 들어와 더 힘들어졌다는 탄식을 내뿜고 있다. 연이은 제국주의적 착취에 시달리게 된 버거운 현실이 민중들의 일상적 대화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지식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핵심인물인 남승지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학교 교사가 된 인텔리다. 그는 일장기 대신 내걸린 성조기를 통해 본질적으로 지속되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확인한다. 해방된 조국의 도청 건물에도 태극기는 여전히 필립일 수 없었음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도청 건물 위에서 성조기가 기세 좋게 필립하고 있었다. 남승지는 성조기를 얼핏 보았을 뿐인데도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 그것이 정말로 우리 국기가 아닌 미국 국기에 틀림없단 말인가? (...)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조국의 남단 제주도에까지 이국의 깃대가 우뚝 서 있는 광경은 한순간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 과거에는 일장기가 36년간이나 ‘국기 계양대’에 걸려 있었다. 그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 (I-36~38)¹²⁾

일제가 패전한 만큼 민중들도 지식인들도 모두 새나라 건설이라는 희망에 들떴다. 제주사람들은 섬에 들어오는 미군을 해방군으로 인식하여 열렬한 환영을 준비하기도 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미군을 맞이한 것이었다.

12) 소설의 중반에 이르면,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가 필립인다. “성조기가 해방 후 최근까지 3년 간, 밤낮 없이 계양대에 걸려 있”다가 “8월 15일에 신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성조기가 내려진 것은 표면적으로 이치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이 나라에 계속 눌러앉아 있는 것일까”(VI-287)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된다.

9월 28일, 드디어 미군이 몰려왔다. 제1진이 수송기로 성내 서쪽 근교에 있는 옛 일본군 비행장(지금은 미군용 비행장이자 캠프였다)에 상륙했다. (...) 그들은 관덕정 광장에 정렬한 수십 명의 유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아니, 적의에 가득 찬 눈초리로 행진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전쟁 중의 적국에 상륙한 군대나 다름없었다. (...) 유지들과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게 있을 뿐이었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환영 아치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만세! 하고 들었던 손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I-164)

미군은 이미 스스로 점령군임을 표방했던 터였다. 9월 7일 요코하마 태평양 미합중국 육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대장 명의로 “점령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공치안과 질서 안전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들을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II-62)고 공포한 상황이었다. 환영에 나선 제주사람들이 머쓱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미국 혹은 미군의 존재는 의미 있는 인물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인물로만 본다면 조역도 아닌 엑스트라일 뿐이다.

뒤쪽에서 달려온 미군 지프가 앞쪽의 소가 끄는 수레를 비켜 세우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다.(IV-438)

비행장에서 돼지고기를 굽는다……? 아하, 아마도 미군들이 야외에서 제주도의 후돼지를 통구이 하는 모양이다. 바비큐인지 뭔지를. 가까이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 수용소 텐트 안의 배를 굽주린 수용자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기름기 섞인 냄새와 함께 제주도 돼지를 통구이 하는 강렬한 냄새에 발광하거나, 장이 꼬여 큰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VI-315)

개별 인물로서의 미군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군들이 나오고 있을 따름이다. 작품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삽화적 장면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요 작중인물들과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엮이는 경우도 없다.

이처럼 미국인이나 미군이 본격적인 등장인물로 나오지는 않지만, 미군과 미국의 존재는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하다. 『화산도』에서는 4·3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관련되었음이 분명히 제시되기 때문이다. 작품 말미

에 나오는 1949년 1월 초 미군의 함포사격 장면은 그 대표적인 부분이다.

함포사격은 위협하기 위한 공포(空砲)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은 실탄을 쏘아댄 것이었다. 중산간지대나 산록지대에 적중해 무수한 불을 내뿜은 것을 보고도 공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변명밖에 되지 않았다. 애초에 표적이 되는 게릴라의 근거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은 마구잡이로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지트를 목표로 하지 않은 채 하늘에서 투하한 폭탄도 마찬가지였다.(XII-195)

미군이 제주도에 함포사격을 가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¹³⁾ 하지만 이는 “무엇 때문에 미군정과 미국이 집요하게 해방공간의 한반도의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 간섭했는지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 이해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문학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¹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미국의 전략 혹은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뚜렷이 표출한다. 그것을 통해 미 제국주의가 4·3의 주요 원인임을 분명하고 집요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석범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조선을 분할 점령한 데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패전국이 아닌 조선이 왜 분단국이 되어야 했는지, 연합국에 협력한 조선이 왜 악화일로를 걸어야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 13) 5·10선거가 제주에서 보이콧 된 후 제주 해안에 출현한 미군의 구축함 ‘그레이그’호의 모습이 포착되는 등 미군의 4·3 진압 활동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에는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고 언급되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39쪽.
- 14) 고명철,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문학적 고투: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탐라문화연구원, 『제일제주인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6, 80쪽.

일찍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패전국이 이처럼 앞으로 전진하고, 독립하여 해방되었을 조선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섬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뒤바뀐 미군정’ 연합국에 협력한 조선이 자유를 상실하고 잔혹한 개인적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최근까지 미국의 적이었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들이 지금까지 향유하지 못했던 자유와 민주화를 구가하고 있다(II-383)

이처럼 작가는 “연합국에 협력한 조선은 자유를 상실”하고 “패전국 일본은 민주화를 구가”(VI-145)하는 상황, 일본은 전진하고 조선은 역진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의 전쟁책임 회피 전략이 야합했던 결과라는 것이 김석범의 생각인 듯하다. 태평양전쟁 직후의 국면에서 똑같이 미군 점령하에 있으면서도 조선만 피해해진 현실에 대해 비분하면서, 결국 제주도가 그와 관련하여 무장봉기로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맞았음에 원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은 큰 문제였다. 김석범은 친일파 문제를 시종여일 집요하게 쟁점화했다. “미국이 비호, 육성해 온 친일파”(XII-236)의 득세는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을 지닌 민중들을 분노케 했다. “이놈 저놈 모두 일제협력자가 아닙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이 나라는 일제협력자의 천국입니다.”(V-175)라는 한대용 발언은 그러한 분노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기에 급기야 8·15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에 이른다. “내일은 광복절. 빌어먹을 8·15”(V-501)라거나 “똥 단지(糞壺) 같은 8·15야”(V-558)라는 탄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주인공 이방근은 “난 제주도사건도 친일파가 지배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본을 따지자면…….”(VII-318)이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4·3의 전계에서 “무엇보다 과거의 반일파는 지금의 게릴라, 과거의 친일파는 지금의 반게릴라라는 구도가 성립”(V-511)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방근은 오랜 기간 소파에 파묻혀 있던 터였지만, 친일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¹⁵⁾ 그는 4·3 봉기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조자

15) 이방근이 친일 경력자를 무조건 싸잡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일제협력자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는 일. 그 일에 대해 철저한 자기부

였고, 나중에는 국회의 반민특위 결성과 활동에도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봉기는 점점 실패로 기울어져 갔고, 반민특위는 와해되는 국면에 이르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만조가 된 뒤 조개를 캐는 식으로, 이미 너무 늦어 버렸다. 해방 직후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할 일을, 일본 패배로부터 3년. 미군정하에서 온존해 온 친일 세력은 정부를 비롯해 이 사회의 거의 모든 기구에 벌써 침투해 버린 것이다.”(IX-157)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었다.

소파에서 벗어난 이방근은 자기의 방식으로 행동에 옮긴다. 그의 친일파에 대한 단죄는 유달현에 대한 사적 처단으로 결행되었다. 유달현은 일제 강점기에 협화회(協和會) 회원으로서 내선일체, 일억총력전 운동의 열성분자로 경시청에서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로, 해방 후에는 재빨리 변신하여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활동한다.¹⁶⁾ 그런 그가 4·3의 와중에 성내 조직이 일망타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확인되자, 이방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작가는 장면제시 기법으로 이방근과 한대용을 비롯한 청년들의 유달현 처단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그가 유달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옛 사람들은 지당한 말씀을 하셨다. ‘개꼬리 3년을 땅에 묻어도 족제비 꼬리털이 되진 못한다’고 말이지. 네 놈은 말이다, 그 근성이 일제 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는 놈이야. 네놈은 자신의 굴욕도, 창피도 모르는 놈……. 썩어빠진 친일파와 똑같아. 유다 새끼야!”(XI-346)였다.

반제국주의 투쟁과 통일 투쟁은 사실상 동일한 맥락이다. “이 국토에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고, 권력을 손에 넣은 친일파가 설친다. 과거의 매국노

정을 한 후에 사회참여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 같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고, 크게 기뻐할 일이었다.”(VI-29)에서 보듯, 진정한 참회가 전제된다면 그들의 사회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16) 김석범은 해방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협화회의 간부였던 남자가 지금이 야말로 나 같은 인간이 나서야 할 때라고 하는 거요. (...) 인간이 하룻밤에 바뀌는 거야. 생각하면 일본으로 돌아온 나도 한심한 인간이었지만, 하룻밤에 변하는 인간을 보는 것도 한심했지. 정말로 눈물이 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석범이 실제로 겪었던 이 남자가 『화산도』에서 유달현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김석범·김시중(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옮김, 『애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26쪽.

였던 그들이 ‘반공 애국’을 외치며 국시라고 했다.”(XI-210)는 인식은 반공을 명분으로 분단을 획책하던 세력의 부당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서북청년회의 횡포는 반공을 등에 업은 이들의 거침없는 행보였기에, 모두 하나의 고리에 얽이면서 4·3의 원인이 된다. “한반도의 분할을 실시하려는 유엔 조선위원회에 반대하는 데모,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데모, 미소 양군의 동시철수와 조선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조선 인민에게 맡기라는 데모, 노동자와 농민 주민의 생활권을 요구하는 데모”(II-325)가 바로 4·3 봉기로 이어진 것이었다. 결국 4·3 봉기는 반제국주의 투쟁이면서 “자르면 하나가 되고, 자르지 않으면 두 개가 되는”(XII-58) 38선을 무너트리는 통일 투쟁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이는 「까마귀의 죽음」(1957)에서부터 견지해온 그의 일관된 소신이었던 바,¹⁷⁾ 그것이 『화산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화산도』는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으로서 4·3이 지닌 의미를 분명히 견지한 작품이다. 계속되는 식민 상황의 돌파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따른 온전한 통일정부 수립의 염원이 제주도에서 분출된 게 4·3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여타 4·3소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러 부분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화산도』는 그것을 확고한 주제의식 아래 전면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수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인간애와 평화 지향의 정신

『화산도』를 통독하는 가운데 시종일관 감지되는 것은 4·3이 끝내 대참사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 데 따른 작가의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다. 이는 당시에 그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한 작가의 죄의식과 상통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화산도』에서 김석범은 4·3 봉기의 정당성 자체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

17) 김동윤, 「빛나는 전범(典範), 관점의 무게」, 김석범, 김석희 옮김, 『까마귀의 죽음』, 각, 2015, 355~376쪽 참조.

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초래된 희생은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나, 하는 물음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희생을 최소화했어야 마땅했다는 신념을 뚜렷하게 표출하였다는 것이다. 『화산도』에서 작가의 그런 신념은 주로 이방근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아, 보인다, 보여…….”/ (….) 지금 이 밤의 광대한 한라산 기슭 일대에, 마치 봉화의 퍼레이드라도 벌이는 것처럼 빨갛게 타오르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여기저기 솟아 있는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고 있었다. (….) / 어둠 속에 타오르는 환상적인 불의 무리, 이방근은 순간 황홀함에 사로잡혀, 그것들이 게릴라 봉기의 신호이자 시위라는 것도 잠시 잊고 있었다. (….) 한밤중에 밖에 나와, 이렇게 봉화를 본 것은 기쁨이었다. 이방근은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감동에 몸을 떨었다. 그는 전에 없이 흥분하고 있었다.(IV-317~318)

이방근이 4·3 봉기를 알리는 오름의 봉화를 장관으로 여기면서 황홀감에 젖어 흥분하고 있음은 단순히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심정적으로 봉기의 대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봉기 세력을 마냥 지지하고 성원할 수 없도록 흘러갔다. 성내 공격의 실패 등으로 투쟁이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희생은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방근은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적 해결의 길이 절실함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이미 게릴라 측이 교섭의 장을 상징하고 있는 듯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소 뜻밖인 강몽구의 탄력적인 태도의 배경에는, 가능하면 4·3봉기의 투쟁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수습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V-93)음을 감지한다. 이후에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구(김익렬이 모델)와 게릴라 사령관 김성달(김달삼이 모델) 간에 4·28평화협상¹⁸⁾이 성과를

18) 1948년 4월 28일 대정면 구억리에서 김익렬과 김달삼의 협상은 “①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②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③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도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는 등의 합의를 보았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198쪽. 『화산도』에서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거두어 그 합의 사항에 따라 전투 중지와 하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방근은 평화적 해결 양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메이데이의 오라리방화사건과 곧바로 이어진 5월 3일 경찰의 귀순 파괴 공작으로 화평은 깨지고 말았다.

(…) 경찰에 의한 하산자의 학살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양준오가 뭔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일어날지도 모른다면 경찰의 모략이 무서운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양준오는 두 사건 모두 면밀하게 짜인 경찰 측의 협상 파괴의 음모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정세용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이방근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의 불빛이 척추를 내달려 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V-350)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학우를 팔아 목포경찰서의 순사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소문난 정세용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 이번 인사도 뒤늦게나마 군과 게릴라 간의 4·28 평화협정 파괴 공작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냄새가 풍겼다. 사건 직후의 표창은 눈에 띄니까 눈속임을 위해 일정한 시기까지 미뤄 왔을 것이다.(VIII-159)

평화협상 파괴를 위한 경찰의 공작에 이방근의 외가쪽 친척인 정세용이 앞장섰다. 그는 5월 3일 게릴라 하산자를 습격하다가 부상당해 미군에게 체포되었다는 고 경위가 자신은 경찰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폭도로 위장한 경찰특공대장이라고 자백하자, 그날 밤 경찰 취조실에서 그를 사살하는 일을 맡았다. 그 논공행상으로 승진까지 했으니, 이방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4·3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평화적인 해결책은 없어지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정세용은 결국 “4·28화평협상 파괴음모, 고 경위 모살주범, 10·25 ‘선전포고문’ 인쇄 직후의 성내 조직 일제검거 선풍의 배후조종자”(XII-289)로 찍혀 게릴라에게 납치되었다. 그 소식을 접한 이방근은 산에 올라가서 정세용을 직접 처단한다.

오른팔이 표적을 향해 움직였다. 전신이 폭발하는 무시무시한 마찰이

거의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얼음의 얼을 발하며 등을 뛰어오른다. 풀지 마! 눈가리개가 풀리자 2미터 거리에서 시선이 충돌했고, 정세용이 끼-악 하고 무서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거의 지옥의 불꽃이 들여다보이는 그 눈을 향해 발사되려던 권총의 총구멍이 왼쪽 가슴을 향해 불을 뿜었다. 찢른 칼날을 뽑는 듯한 감각이 이방근의 전신을 서서히 달렸다.(XII-316)

이방근은 앞서 친일파 처단에서 친구인 유달현을 택했고, 이번의 화평과 괴공작에 대한 처단에서는 친척인 정세용을 택했다. 4·3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혹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제주도민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스스로에 대한 통절한 반성의 의미가 바로 이처럼 가까운 인물에 대한 직접 처단의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마지막에 이방근이 자살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된다.

이방근은 게릴라 측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¹⁹⁾ 그랬기에 게릴라 지도부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비판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해주에서 열리는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 참석차 월북한 김성달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해주 회의에 참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와야 했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투쟁에 합류해야 할 것”(VIII-11)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배신자지.”(IX-413)라고 말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게릴라들은 더욱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 되었다.

“(…) 4·3사건은 일어날 만한 필연성이 있었네. 그렇잖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도민이 봉기, 지지하질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말야, 승패에 관한 한, 모순되지만 난 부정적이네. 즉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이네. 결국은 실패라는 말이야. (…) 이제 남은 건 강대한 정부군에 포위당해, 막다른 골목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 게다가 미군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잖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으-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용서할

19) 김제용은 “이 작품은 무장대를 주된 등장인물로 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들을 일방적으로 미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화산도』를 분석했다. 김제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4·3문학, 그 안팎의 저항적 목소리』, 역사문제연구소,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288쪽.

20) 이에 비해 끝까지 섬에 남아 투쟁을 이끌었던 이성운(이덕구가 모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수수한 청년”(X-318)이라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수가 없네. 도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김성달 무리를…….”(X-248~249)

제주섬은 대살육의 참화에 빠져들고 말았고, 게릴라의 패배는 명약관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근은 “산중의 게릴라 전원을 조직적으로 섬에서 탈출시키는 길”(X-258)을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성사시키기 어려운 꿈일 따름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이거나 탈출 작업에 나선다. 한대용에게 사들인 어선 등을 동원하여 게릴라들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 난 패배를 예상하는 싸움에서의 죽음을, 혁명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적어도 개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 다구. 방침의 전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원 구출, 탈출, 퇴각이라는 건 말의 미화가 되겠지, 탈출의 길을 피해야 해. (…) 전원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X-274)

“모든 죽음은 살아 있는 자, 생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 있는 자 속에서만 사는 거지.”(XI-324)라는 신념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 유원과 성내지구 여성동맹 부위원장인 신영옥을 일본으로 탈출시킨 데 이어, 성내의 양조장에 수용되어 있던 남승지를 빼돌려 기어이 밀항선을 타게 만든다.

김석범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에 대해 미국, 이승만, 서북, 군경에만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다. 용의주도한 대책도 없이 봉기를 일으키고서 섬을 빠져나간 일부 무장대 지도부에도 비극적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방근 등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밀항선을 띄우는 일에 전력투구하는 이방근의 모습은 무척이나 눈물겹고 숭고하게 비추어진다. 그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절실하고 고독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화산도』는 작가 김석범의 인간애가 평화 지향의 정신으로 오롯이 승화된 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작가가 시종일관 역점을 두고 있는 평화에 대한 신념은 곧 4·3의 정신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화산도』가 거대서사의 정치성을 뛰어넘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인 동시에, ‘지금-여

기'에서도 웅숭깊은 위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마땅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바다와 성내의 장소성

『화산도』가 지닌 4:3소설로서의 위상은 장소성에서 빛난다. 주목할 장소로는 바다와 성내가 꼽힌다. 바다는 4:3소설의 폭을 확산하였으며, 성내는 그 깊이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4:3소설의 영역을 바다로 확장했다는 점은 매우 차별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4:3소설에서 사태의 양상과 면모는 주로 한라산과 오름, 초원 그리고 마을과 해안을 무대로 형상화되었다. 4:3소설에 그려진 바다는 수장(水葬)된 공간, 떠나고 들어온 공간, 차단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화산도』는 바다가 4:3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었던지를 분명히 인식시켜 줌으로써 수월성을 확보하였다.

4:3 봉기를 앞두고 강몽구와 남승지는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간다. 재일 제주인 등으로부터 투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른바 캄파(カンパ; kampaniya) 투쟁을 위한 도일이다.

밀항선은 꼬박 하루 만나질을 향해한 뒤 저 멀리에 겨우 섬 그림자 하나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갑판으로 나온 남승지는 귀밑머리를 살랑거리는 상쾌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 섬을 바라보았다. 이키(壹岐) 섬이라 한다. (...) 남승지는 드디어 일본이라는 감상보다는 압박해 오는 필지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끌려갈 것만 같은 일말의 두려움을 느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느끼는 순간적인 현기증과 비슷한 반응이었다. 남승지는 그때 문득 일본에 사랑해 마지않는 육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 뒤로 펼쳐진 광대한 바다 건너 아름다운 한라산 자락 아래 펼쳐진 제주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망망한 수평선 너머로 한라산을 찾아보았던 것이다.(II-360)

일본 진입을 앞두고 해상에서 남승지가 느끼는 알 수 없는 압박감과 두려움은 봉기 주역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에 대한 부담감이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의식이나 진실성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수평선 너머

의 한라산을 찾아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투쟁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185만 엔의 자금을 모으고 제주행 밀항선을 탄다. 다음 인용은 강몽구와 남승지가 일본에서 캄파 투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이다. 격랑 속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급박하고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움직이지 마!” 어느 틈에 가방에서 꺼냈는지, 강몽구는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다. (…)/ “(…)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당신들은 장사꾼이다. 돈은 또 벌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가져가는 짐은 개인의 물건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아까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통방울눈에 머리가 벗겨진 사내가 반미치광이처럼, 도둑이다, 해적이다, 라고 아우성치며 울기 시작했다. 강몽구는 문 옆에 서 있는 선장과 선원들을 비키라고 하더니, 빼격거리는 문을 열고 팔을 뻗더니 바람이 휘몰아치는 하늘을 향해 총을 한 방 쏘았다. (…)/ 남승지는 선실 벽에 붙어 있는 로프를 필사적으로 잡고, 갑판에 들러붙듯이 기어서 뱃머리 쪽으로 갔다. 파도가 커다란 바위라도 두들기듯 굉음과 함께 뱃전을 때렸다. 그래도 배는 용케 파도를 헤치고 뱃진이 해면에 닿을 듯 말 듯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전신에 쏟아져 내리는 차가운 물보라를 뒤집어쓰면서, 남승지는 공포심도 잊고 거친 바다와 맞서는 작은 배에 감탄했다. (…)/ 파도를 뒤집어쓰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선원들은 짐을 계속해서 바다에 버렸다. 한 시간도 채 못 되는 사이에 20여 개의 커다란 짐짝을 바다에 버렸는데, 그것만으로도 배는 해면 위로 추욱 올라왔고, 선체가 가벼워져 한결 가뿐하게 파도를 타는 듯한 느낌이 갑판에 버티고 선 발밑에서부터 온몸으로 전해졌다.(III-232~234)

좌초의 위기를 넘긴 배는 결국 파도를 넘으며 제주섬으로 달려 나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주들의 짐은 대부분 바다에 버려졌다. 캄파투쟁으로 마련한 강몽구와 남승지의 짐 중에서도 장화나 운동화가 든 상자들은 일부 버려야 했다. 이처럼 캄파투쟁을 마치고 귀환하던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는 상황은 4·3의 험난한 여정을 암시한다. 투쟁의 앞날에 닥칠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위기 상황에서 강몽구처럼 용의주도한 지도력과 결단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봉기는 좌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작품 후반부에서 이방근은 김달준으로 위장하여 도망가는 유달현을 자신

의 밀항선에 태운다. 친일과이자 조직의 배신자에 대해 “산속에서가 아니라 바다 위의 인민재판”(XI-310)을 계획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한대용과 청년들에 의해 유달현이 돛대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진 다. 거친 바다 위에 뜬 밀항선의 돛대에 사람이 매달린 상황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다.

“넌 나,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악마 새끼, 네 손으로, 네 자신의 손으로. 유, 유다가 아니야, 유달현을 죽여라, 죽여 봐, 넌 진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아, 아이구……, 아이구…….”/ 끼익, 끼익 마스트가 이를 갈며 배가 흔들렸다. 뱃진을 때린 커다란 검은 파도 덩어리가 갑판으로 튀어 올랐다. 배는 반대편의 파도 골짜기로 빨려 들어갈 듯이 기울다가 솟아오르는 파도에 밀려 다시 요동쳤다. 갑판에 소리를 내며 넘치는 바닷물이 순식간에 흘러 떨어졌다. 이방근은 하반신이 흠뻑 젖으면서도 다리로 힘껏 버티고 섰다./ 순풍이지만 바람도 물보라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맞바람이었다면, 춥다, 추워…… 하며 소리를 내고 있지만, 마스트의 유달현은 얼어 버릴 것이었다. 선체가 기울 때마다 꼭대기 쪽으로 중심이 쏠리는 낡은 마스트는 좌우로 상당히 크게 흔들리며 계속해서 빼격거렸다. 바다는 비바람이 치지 않는데도 거칠어지는 듯 했다./ 간헐적으로 덮쳐 오는 선체보다 커다란 파도 속에 머리를 처박았다가, 배는 뱃머리를 다시 들고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마치 흐느껴 울기라도 하듯이.(XI-346)

매달렸던 유달현은 환각에 사로잡혀 까마귀가 날아온다고 소리치더니 급기야 분노를 흘리고 죽는다. 그의 시신은 파도에 씻긴 후 어두운 바다로 던져졌다.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이기에 독자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주는 가운데 매우 극적으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방근은 바다에 밀항선을 띄움으로써 자신의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했고, 그곳을 통하여 재생과 부활의 씨앗을 남겼다. 바다가 없었다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한라산 자락의 산천단에서 맞는 최후의 순간에도 바다를 본다. “아득한 고원의, 보다 저 멀리, 초여름의 햇볕에 반짝이는 부동의 바다”(XII-370)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의 그에게 포착되었다. 바다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었다.

이처럼 『화산도』는 4·3에서 바다가 지닌 또 다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디테일하고 밀도 있는 묘사를 바탕으로 누구도 그려 보이지 못한 새로움을 제시한 것이다.²¹⁾ 성공적인 ‘낯설게하기’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없

다. 이는 여러 차례 제주, 목포, 일본 등지를 배로 드나들다가 1946년 7월에 일본으로 밀항하였던 김석범의 경험과 관련이 깊음은 물론이다. 국내의 4·3 소설에서 간과되어 왔던 해양문학적 요소의 뜻 깊은 발견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성내(城內)²²⁾가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전경화(前景化) 되었음도 아주 중요한 맥락이다. 국내 작가의 4·3소설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성내 보다는 외곽의 농어촌을 무대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다.²³⁾ 3·1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거나 관덕정 앞에 전시된 이덕구 사령관 시신 장면의 묘사 등을 제외하고는 성내가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인 학살 문제나 토벌대와 무장대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되는 양민들의 모습을 주로 다루어왔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내라는 장소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화산도』가 지닌 특징적인 면모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이 작품은 남승지가 성내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 이방근, 양준오, 김동진, 강몽구, 유달현 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게릴라의 뼈라가 인쇄되어 뿌려지고, 이방근의 고뇌와 갈등이 요동친다. 서북의 횡포가 벌어지고, 단선 추진 세력의 행보가 구체화되며, 토벌 작전이 수립되고, 미군과 미군정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굶판이 벌어지고 제사가 거행되는가 하면 온갖 풍속들이 펼쳐진다.

김석범이 “다소의 피난민은 있어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성내 지구”(VII-55)를 택한 전략은 유효했다. 제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무장대의 공격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 토벌 군정과 서청의 활동 근거지

21) 권성우는 『화산도』가 “그동안 한국 소설이 충분히 형상화하지 못한 사건과 장면을 참으로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밀항(密航)’을 들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밀항 과정에 대한 묘사가 매우 놀랍고 신선”하다며, 그것을 ‘밀항의 상상력’으로 칭하였다. 권성우, 앞의 글, 273쪽.

22) 성내는 ‘성안’이라고도 하는데, 제주읍성(濟州邑城)의 안쪽 지역을 말한다. 탐라국 시대부터 오랫동안 제주의 중심지였다.

23) 제주도 바깥 지역의 경우는 한반도 남부, 일본 등으로 무대가 확대된 경우도 더러 있다. 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2000) 같은 북한 작가의 작품에서는 이북의 해주와 평양 등지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한나의 메아리』에 대해서는 김동윤, 『북한소설의 4·3 인식 양상: 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론』,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177~210쪽을 참조할 것.

인 곳, 그러면서도 제주도 지식인들의 활동 중심지인 성내가 주요 무대가 됨으로써 4·3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내는 거리두기에도 적절한 공간이 되었다. 그곳이 살육의 한복판이 아니었기에 사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4월 3일 성내 공격의 불발로 “성내 거리의 진공 같은 정적”(IV-319)을 그린 부분에서는 봉기의 궁극적 실패를 예감케 한다. 성내의 상황이 사태 전반을 가늠하는 핵심인자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인공 이방근이 성내의 부르주아라는 점도 중요하다. 성내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은 봉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서북이나 경찰, 지역 유지들도 종종 찾아왔다. 부스럼영감과 목탁영감도 드나들었고 ‘부억이’²⁴⁾는 이방근 집을 거점으로 조직 연락원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태의 와중에 예외적으로 목포를 통해 서울에 드나들었고 밀항선까지 운영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4·3을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요컨대 『화산도』가 바다와 성내의 장소성을 부각시켰음은 4·3소설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새로운 접근으로 4·3의 영역에서 바다를 의미 깊게 포착했다는 점, 성내가 낯선 방식으로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다른 작가의 4·3소설에서 접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공간적 영역의 확장과 새로운 발견은 이 소설이 지닌 독자적인 성과로 꼽아야 마땅하다.

24) 보고사판에서 ‘부억이’라는 이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천문학사판에서는 ‘부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고사판에서는 ‘부억이’가 되었다. 원전에 ‘ブオギ’, ‘ブオガ’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받침에 ‘키’를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부어키’, ‘부어카’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다. ‘부억이’나 ‘부옥이’로 번역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국인의 이름으로서 ‘부옥이’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어(濟州語)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놓고 요리나 설거지 따위의 일을 하는 곳을 뜻하는 명사로 ‘부억이’ 아닌 ‘정지(정제)’를 사용한다는 점, 원전에서 ‘부억’은 ‘廚房’(1997년 일본 ‘文藝春秋’관 I 권 256쪽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마무리

김석범의 『화산도』는 2015년 10월 국내 완역 출간을 계기로 그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작품은 여러 부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이 글에서는 4·3소설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산도』는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으로서의 4·3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일본과 미국에 의한 연이은 식민 상황과 한반도 분할 점령에 따른 분단 극복의 염원이 제주도에서 분출된 것이 4·3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계속되는 식민 상황에 대한 제주도 민중과 지식인들의 인식, 점령군을 자처한 미군의 존재, 4·3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미군정 정책에 따른 친일파의 득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연합국에 협력한 조선이 분할되어 피폐해진 역설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투쟁으로서의 4·3의 의미도 강조되었다.

둘째, 『화산도』에서는 4·3이 끝내 대참사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데 따른 안타까움이 시종일관 감지된다. 작가의 신념은 작중인물 이방근을 통해 주로 나타나는데, 이방근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성과를 보였던 4·28평화협상이 경찰에 의해 깨지는 상황이 되고, 이후 사태가 악화일로로 걷게 되자, 협상 파괴 공작에 나섰던 정세용을 작품 말미에서 직접 처단한다. 아울러 이방근은 게릴라 지도부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비판한다. 대살육의 참화에 빠져드는 후반부에 이르러 이방근은 게릴라들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데 혼신을 다한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고독한 투쟁이었다.

셋째, 『화산도』의 위상은 바다와 성내의 의미를 부각시킨 장소성에서도 빛난다. 캄과 투쟁을 위해 넘나든 바다, 유달현을 처단한 바다, 밀항선을 띄우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등이 밀도 있게 그려졌는데, 이는 4·3소설의 영역을 바다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성내가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었음도 다른 작가의 4·3소설에서 접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다. 제주도 정치사회적 중심지이면서 지식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곳, 게릴라의 공격이 거의 미치지 못한 곳, 미군과 군경·서청의 거점인 곳

인 성내가 전경화 됨으로써 4:3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4:3소설은 껍 오랫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범의 『화산도』는 그 완역을 통해 4:3소설 갱신의 방향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 살핀 것처럼, 반제국주의 통일 투쟁을 강조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콤플렉스를 과감히 돌파해야 함을 보여주었고, 인간애와 평화 지향의 정신을 시종일관 견지함으로써 숭고하게 계승해야 할 4:3 정신의 방향타를 제시하였으며, 바다와 성내의 장소성 부각을 통해서 4:3을 더욱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전략적 상상력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기본 자료

김석범, 김환기·김학동 옮김, 『화산도』1~12, 보고서, 2015.

金石範, 『火山島』I~VII, 文藝春秋, 1997.

단행본 논문 기타

고명철,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문학적 고투: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탐라문화연구원, 『재일제주인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6.

권성우, 『망명, 혹은 밀항(密航)의 상상력』, 『자음과 모음』 2016년 봄호.

김동윤, 『북한소설의 4·3 인식 양상: 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론』,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동윤, 『빛나는 전범(典範), 관점의 무게』, 김석범, 김석희 옮김, 『까마귀의 죽음』, 각, 2015.

김석범, 이호철·김석희 옮김, 『화산도』 1~5, 실천문학사, 1988.

김석범·김시중(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옮김, 『왜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4·3문학, 그 안팎의 저항적 목소리』, 역사문제연구소,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학동, 『『火山島』 완역의 의미』, 『제주작가』 2005년 겨울호.

김환기, 『김석범·『화산도』·〈제주4·3〉: 『화산도』의 역사적/문화사적 의미』, 『일본학』4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11.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제주4·3항쟁과 재일한국인 문학』, 삼인, 2001.

오은영, 『재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조선적인 것: 김석범 작품을 중심으로』, 선인, 2015.

유임하, 『초대서평-김석범 소설 『화산도』』, 『아시아경제』 2016.5.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s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that Appear in A Volcano Island by Kim Seok-bum

Kim, Dong-yun(Jeju Univ.)

A Volcano Island by Kim Seok-bum, a Korean-Japanese writer,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October, 2015, opening the door to a new framework of study. This novel can be approached from a variety of aspects. This paper approaches it from the aspect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The points discussed are as follows:

First, A Volcano Island shows the definite meaning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It was triggered by the desire to overcome the dire situations where Korea had been under the control of Japan and the U.S., consecutively, and the Korean Peninsula was separat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Particularly, this work sheds light on the awareness of the grass roots and the elite in Jeju about successive colonial situations, the presence of the U.S. army, the role the U.S. played on the repression of the Jeju uprising, and the prevalence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meaning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s a strife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criticizing the separation of Josen that collaborated with the United Nations.

Second, A Volcano Island consistently expresses a pity for the tragic massacre the Jeju April 3rd Uprising ended in. The author reveals his belief mainly through a character, Lee Bang-geun. He believes that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situation in a peaceful way. April 28 Peace Negotiation yielding good results is spoiled by police, the situation becoming disastrous. He kills Jeong Se-yong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spoiling the negotiation. He also sharply criticizes irresponsible guerilla leaders. In the latter part where the situation is spiraled into a horrible massacre, he strives to repel guerillas to Japan. It is a lonely strife a man who loves human beings and longs for peace.

Third, A Volcano Island's setting is also brilliant. It highlights the meaning of the ocean and the city. A variety of oceans are tightly described: the ocean that should be crossed for a political campaign, the ocean that You Dal-hyun is executed, and the ocean where a smuggler is set afloat. This is an outstanding outcome in that it extends the realm of April 3rd literature to the ocean.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city is a main spatial setting which we have hardly seen in other works dealing with the April 3rd Uprising. This novel sets the framework to get closer to the very heart of the uprising by adopting the city as a spatial setting which is the political social center of Jeju, the place that guerilla's attacks hardly reach, and the base of the military, including the U.S. army, and the poli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s.

■ Key words: April 3rd novel, A Volcano Island, anti-imperialism, peace, placeness

접수일자: 2016. 6. 30 심사일자: 2016. 7. 18 게재결정: 2016. 8. 10